이범호 KIA 감독 공식취임… “임기내 12번째 우승 목표”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3억원 등 총 9억원에 부임

“부상없이 시즌 치를 수 있도록 가을야구 목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11대 이범호 감독이 공식 취임하고 12번째 우승을 향한 여정에 나선다.

KIA는 8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 대강당에서 이범호 감독 취임식을 열고 등번호 ‘71’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했다.

이범호 감독은 “임기 내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11번 한국시리즈 진출해 11번 우승했던 KIA의 전통을 잇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범호 감독은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 등 총 9억원에 KIA 감독으로 부임했다. 지난 2017년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만루홈런을 터뜨려 통산 11번째 우승에 기여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도 선수들의 실력은 좋았었는데 시즌 막바지에 주전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분명 상위권 전력이기 때문에 부상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도록, 가을야구를 목표로 시범경기부터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선수들도 포지션별로 많이 성장해 기대가 크다”며 “저도 젊은 감독인 만큼 패기있는 모습의 경기를 통해 임기내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불패신화를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시범경기에서 한화로 복귀한 류현진 투수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류현진의 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상대해 보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KIA는 오는 12일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류현진을 상대한다.

이 감독은 “전지훈련에서 젊은 선수들이 고참 선수들과 경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많이 성장했다”며 “하지만 연습경기장과 실제 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범경기를 통해 주전을 고른 뒤 시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영입한 2명의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에 대해서는 “미국무대에서 공을 던졌던 선수들이어서 기량이 검증됐다”며 “구위, 성격, 국내 선수들과의 친화력도 좋아 올시즌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시즌은 10개팀의 투수력, 수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일 큰 변수는 선수단 부상관리 일 것 같다”며 “한경기 한경기 이기는 경기를 통해 가을야구에 진출하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8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 대강당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이범호 감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8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 대강당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 취임식에 참석하는 나성범.

나성범 “류현진 공략 비법, 최형우 선배로부터 전수받겠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장 이범호 감독 취임식에서 밝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이 최형우에게 류현진 공략법을 배워 시범경기에 나선다.

나성범은 8일 오후 KIA 이범호 감독 취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대전 한화전 시범경기와 2024시즌 시즌 포부를 밝혔다.

나성범은 “1군에 올라왔을 때 (류)현진이 형이 미국에 진출해 한번도 상대하지 못했다”며 “상대 할 수 있어 영광이며 분명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준비를 잘 한다면 공략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형우 형이 상대 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비법을 전수 받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KIA는 오는 12일 대전에서 한화 류현진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 감독은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시키겠다고 밝혀 나성범도 타석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우는 류현진의 최대 천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0타수 16안타 타율 0.400 4홈런 9타점을 기록했다. ·

시즌 각오에 대해서는 “지난해 막판 부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지훈련 전부터 몸을 만들었고 모든 훈련을 잘 마쳤다”며 “팀이 우승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가을야구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또 “이범호 감독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치겠다”고 각오했다.

이슬비 기자

스노보드 이상호, 월드컵 시즌 최종전서 우승

평행회전 종합 1위…여자부 정해림은 16위

‘배추보이’ 이상호(넥센)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이상호는 9일(현지시간)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회전 결승에서 안드레아스 프롬메거(오스트리아)를 0.24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호는 지난 1월 불가리아 팜포로보에서 열린 평행회전 경기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마지막 대회를 마친 이상호는 2023~2024시즌 월드컵 평행회전 종목 랭킹 포인트 1위(313점)에 올랐다.

이상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스노보드 간판이다.

강원도 사북 출신인 그는 초등학교 때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타 ‘배추보이’로 불린다.

알파인 스노보드는 스노보드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평행회전과 평행대회전으로 세부 종목이 나뉜다.

예선을 전체 1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에서 아론 마르크(이탈리아)를 0.09초 차로 이겼고, 8강에선 롤랑 피슈날러(이탈리아)를 0.13초 차로 제쳤다.

또 준결승에선 로크 마르구치(슬로베니아)가 완주에 실패하면서 결승 티켓을 따냈고, 1월 팜포로보 대회 결승 상대였던 프롬메거와 다시 만나 또 승리했다.

여자부 경기에선 정해림(하이원)이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는 에스터 레데츠카(체코)다.

뉴시스

황선홍호 오늘 A매치 명단 발표

이강인 선발 여부 ‘초미의 관심’

한국 축구의 미래에서 하극상 논란의 주인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이 3월 A매치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라운드에 선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랭스를 상대로 2023~20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5라운드를 치른다.

이강인은 지난 6일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교체로 출전, 도움을 올려 PSG의 2-1 승리를 이끌며 8강 진출에 기여했다.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1호 도움으로 UEFA ‘이 주의 도움’에도 선정됐다.

최근 활약과는 별개로 이강인은 이슈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사실이 알려져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강인이 영국 런던으로 직접 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애썼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게 사실이다.

축구협회, 3월 태국와 월드컵 예선 홈경기 티켓 11일부터 판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하극상 논란에 고개 숙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선발 반대가 40.7% 차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축구는 조직력과 협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국가대표 선발 반대)’는 응답자의 비율이 40.7%로 나타났다.

‘팀 내 비중과 실력 등으로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국가대표 선발 찬성)’는 46.9%,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2.5%였다.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이강인의 하극상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안컵 내분과 관련해 조사나 사후 수습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는 가운데 그의 발탁을 두고 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으로선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경질 이후 임시로 지휘봉을 넘겨받은 황 감독은 태국과 2연전에서 승리와 분위기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황 감독 입장에선 선발을 하든, 안 하든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령탑이 안고 갈 짐으로 여겨 과감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정몽규 협회장은 지난달 16일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관련 기자회견 당시 이강인에 대해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오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 2차예선 3차전의 입장권 예매 안내 포스터에 이강인의 얼굴을 넣지 않았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현우(울산), 이재성(마인츠)만 포함했다. 이강인의 승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는 11일 오전 11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3월 A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다. 황선홍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씁쓸한 코리안더비’ 뮌헨, 김민재 선발 제외 대승…이재성 무득점

김민재, 2경기 연속 벤치…다음 경기 출전 주목

선발에서 밀린 김민재(바이에른뮌헨)가 벤치에 앉았다 뒤늦게 교체 출전한 가운데 팀은 대승을 거뒀다. 상대팀으로 만난 이재성(마인츠)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채 대패를 당했다.

뮌헨은 1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25라운드 홈경기에서 마인츠를 8-1로 크게 이겼다.

18승3무4패 승점 57점이 된 리그 2위 뮌헨은 1위 레버쿠젠(승점 64점)과 격차를 좁혔다. 패한 마인츠는 2승10무13패 승점 16점으로 강등권인 17위에 머물렀다.

잉글랜드 출신 에릭 다이어와 경쟁에서 밀린 김민재는 지난 6일 라치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이후 두 경기 연속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마인츠 이재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뮌헨이 홈구장에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이재성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반면 뮌헨은 이날 골 폭죽을 터뜨렸다. 전반 13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8골이 터졌다.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레온 고레츠카가 2골을 넣었다. 토마스 뮐러와 자말 무시알라, 세르주 그나브리가 각각 1골씩을 기록했다. 마인츠는 나딤 아미리의 프리킥 골로 1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대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재성은 후반 20분 마르코 리히터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김민재는 점수가 7-1로 벌어진 후반 30분에야 다이어와 교체돼 투입됐다. 마인츠가 만회골을 노렸지만 김민재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에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뮌헨은 고레츠카의 헤더슛으로 1골을 더 넣어 8-1로 승리했다.

주전 자리를 뺏긴 김민재가 오는 16일 다름슈타트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면 김민재는 소속팀에서 주전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에 차출된다.